

**[17~20]+21 독서 기출 연도별 정리**

---



## ● 이제 분석한 기출 지문들을 정리 해 볼 때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기출 분석은 수능 직전까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기출 분석은 수능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합니다. 나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적어도 기출문제지 한 두 개는 끝냈거나, 주요 기출은 대부분 봤겠죠.

## ● 왜 4개년이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고, 그 후에 변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근 4개년 기출들에 현재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조각들의 대다수가 담겨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수험생의 9할은 수능 직전까지 4개년도 제대로 못 봅니다!

## ● 기출을 제대로 본다는 건 무얼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국어 강사들이나 콘텐츠 제작자들만큼 기출 지문들을 통찰하는 건 1년 안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급을 받을 만큼의 기출 학습은 4개월이면 충분해요. 얼마나 잘 보고 가야하는지는 기준이 다 달라요. 제대로 보고 가는 건 아래의 기준을 무조건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학습한 기출의 모든 선지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할 수 있다.

해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모든 선지에 대해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 2. 학습한 기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지문의 내용은 변하지만, 구조는 반복됩니다.

### 3. 학습한 기출 지문의 주제를 깔끔하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기출 지문 중 가장 유명한 지문으로 17.11 반추위가 있죠. '반추위'라고 언급하는 게 편하고 해당 지문을 가장 쉽게 떠오르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지문이 '반추위'를 설명하는 지문인가요? 제 기억으론 "동물이 어떻게 인간은 소화 못하는 섬유소를 소화하는지를 설명하고, 이게 과다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화제가, 어떤 흐름 속에서 설명될까요? 한 문장으로 이를 표현해주세요.

반추위 지문처럼 중간에 결이 나뉘는 지문은 두 줄로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어요. 3번은 조금 낮은 기준일 거예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고. 하지만, 이게 지문의 구조와 내용을 모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기출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열심히 학습하신 분들은 나름 뿌듯해할 만한 통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굳이 기출 문제지를 뒤적거리지 않고 이 학습지를 본다면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요. 경험담입니다!

본 학습지는, 과거를 정리해 봄으로써 현재의 학습을 하게 하고,  
미래의 통찰을 도와줄 겁니다

## 학습하는 법

각 시험에는 3개의 독서 지문 있습니다. 나름 좀 보셨을 테니 대부분 기억이 날 거예요. 각 지문이 몇 문제로 어느 번호대에 있었는지 적어주었고, 이 지문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의 **진짜 제목**은 여러분이 지어주셔야 해요. '어떤 화제가 어떤 흐름 속에서 설명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나름 난이도도 설정해봅시다.

맨 아래 칸엔 지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요약해보시는데 구조적인 특징도 써보고, 본인이 나름 주목해 볼 만한 점들도 자유롭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지문에서 꼭 챙겨갔으면 하는 것들을 간단히!

\*예시 : 생각나는 대로 쓴 거라 참고만 하세요!

21.06	
[29~33] 특허권	****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가는 ICT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p>처음엔 지식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관한 세금들을 소개한다. 이들이 실생활에선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름의 해결책 또한 제시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느낌은 X) 다국적 기업이 겪는 상황을 예시로 들기에 다양한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소득 수준과 해당 국가의 산업이 얼마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가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p>	

17.06

[16~19] 인공지능경망

17.06

[20~24] 유비논증

17.06

[28~33] 음악

17.09

[25~30] 콘크리트

17.09

[31~34] 칼로릭

17.09

[35~39] 사단법인

17.11

[16~20] 포퍼와 콰인

17.11

[33~36] 반추위

17.11

[37~42] 보험

**18.06**

[16~21] 수기치인

**18.06**

[22~25] 통화정책

**18.06**

[30~34] DNS 스푸핑



**18.09**

[16~19] 미술의 리얼리즘

**18.09**

[27~32] 양자역학과 LP논리

**18.09**

[38~42] 집합의례

**18.11**

[16~19]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18.11**

[27~32] 오버슈팅

**18.11**

[38~42] 디지털 통신 시스템

19.06

[16~21] 실학자들의 인체관

19.06

[22~26] 사무실의 방충망 훼손

19.06

[35~38] LFIA 키트

**19.09**

[21~25] CDS 프리미엄

**19.09**

[29~32] STM

**19.09**

[33~38] 근대 도시 삶의 양식

19.11

[16~20] 법률효과

19.11

[27~32] 우주론

19.11

[39~42] 가능세계

20.06

[19~22] 에피쿠로스의 자연학

20.06

[27~31]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20.06

[37~42] 개체성

20.09

[21~26] 영화와 역사

20.09

[27~31] 점유소유

20.09

[38~41] 비콘

20.11

[16~20] 조건화 원리

20.11

[26~29] 레트로바이러스

20.11

[37~42] BIS



21.06

[16~21] 과거제

21.06

[25~28] 카메라

21.06

[29~33] 특허권

**21.09**


**21.09**


**21.09**




